

The Church of Christ, Vol. 47

그리스도의 교회

47 그리스도인의 행복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CHURCH OF CHRST MISSION

그리스도의 교회 (Online)

제47권

The Church of Christ, Vol. 47

펴낸 날
2021년 4월 2일

펴낸 곳
(재)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주 소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28길 57-3
(화곡동)

전화
02) 2607-0645

팩 스
02) 2696-1560

인터넷
thechurch.kr / christ.or.kr

이메일
administrator@christ.or.kr

eISSN 2734-1577

Printed in Korea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새번역, 공동번역, 한글 킹제임스흠정역 등을 함께 사용하며 원문의 뜻을 살리되, 필요에 따라 반점과 온점 등의 부호를 삽입하면서 꺾쇠 안에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출판 사역을 기도와 후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제공: J. C. Choate Publications; World Evangelism; World Video Bible School

후 원: 강남그리스도의교회(서울),
번영로그리스도의교회, 한인그리스도의교회(미국 LA); 김명수, 김무근, 김충기, 이창완.

복음으로 부르심 / 3

- 청사진 확인 / 4
행복에 관한 묵상과 조언
- 성경 도표 / 8
건강한 교회의 표지
- 그리스도교의 역설 / 9
모으면 잃고 잃으면 찾음(2)
- 구약의 교훈 / 14
지혜가 담긴 책들에 비추어 본 행복과 근심
- 함께 찾는 답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실까? / 18
예수님도 감정을 표현하셨을까? / 25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 / 32
- 위로가 필요할 때 / 38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
- 삶을 바꾸는 성경공부 / 47
제2장 긍정적인 삶 세워나가기
- 섬기며 사는 삶 / 52
영적으로 온전한 태도(2/4)
- 하나님의 나라 / 58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생의 소망
- 새 노래 / 64
기뻐하라

시편산책: 제22편 / 30

균형잡기: 보여주기 신앙 VS 보이는 신앙 / 37

찾으며 읽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 47

체크 포인트: 이미, 그러나 아직 / 63

시: 버리고 말기라 / 67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6-101-356564
예 금 주: (재)그리스도의교회선교회
추가문의: (02) 2607-0645

마태복음 5:3-10(새번역)

-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4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 5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 7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 9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에 관한 묵상과 조언



행복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1. 외모
2. 재산
3. 인기
4. 권력/권위/통제권
5. 소유물
6. 지식
7. 원하는 모든 것
8. 고독
9. 명상
10. 장수[長壽. 오래 삶]

행복은 보이지 않는다. 만질 수도, 냄새 맡을 수도, 들을 수도, 맛볼 수도 없다. 사람이 지닌 여러 감각은 잠깐의 기쁨만을 주고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통한 기쁨은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좋은 생각을 지닌다 해도 행복이 계속되지 않는다. 꿈, 백일몽, 극한까지 펼친 상상력 등을 통해서도 행복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산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복을 찾는다. 하지만 행복을 발견하는 경우는 아주 적고,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찾기 힘든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행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이 숨어있는 곳까지 가는 길은 어디 있을까? 사람에게 행복을 찾는 일이 가능하거나 한 걸까? 많은 사람이 행복 찾기를 포기한 채 좌절과 슬픔에 빠져 살다가, 이 세상을 불행한 곳이라 여기며 세상을 떠난다. 그들은 행복을 찾으려는 희망조차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옥을 맛보며 산다. 그 지옥은 그들 자신이 만들

어낸 세계로서, 삶을 계속할 이유가 없지만 죽음은 두려운, 복합적인 문제가 자리한 곳이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둔다. ‘다른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나와 같은 생각일 거야’ 하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방금 걷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행복을 향한 길을 어느 정도 걸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을 향한 길 위에 올라서지도 못한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주위를 둘러싼 삶에 대해 불행을 느낀다. 죽음 뒤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생각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자기 자신이 불만족스럽고, 자기가 한 일이 불만족스러울 때 불행을 느낀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은 큰 불행감을 안긴다.

행복은 자족(自足), 즉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데서 찾을 수 있다(빌립보서 4:10-13). 여기서 자족이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소유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맞게 자족함을 뜻한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공급되어야 만족을 느끼며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

겉모습을 바꾸면 내면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영혼이 자족, 즉 넉넉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혼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지 않고 영혼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영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신체 기관에 나름대로 원하는 감각이 있듯, 영혼에게도 갈망이 있다. 숭배 대상을 찾는 경향, 사회적 인정의 추구, 그리고 가장 큰 가치로서 사랑을 강하게 바라는 경향 등을 영혼은 지니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 우리가 지닌 육체는 영혼의 집으로 성전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이 충족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육체의 충족감을 채우려 애쓰면 안 된다. 육체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육체는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드물고, 그나마도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불멸의 존재인 영혼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은 ‘영원’이라는 속성과 거리가 멀다.*

편집자 註

* 우리 몸도 장차 ‘영원’이라는 속성을 지니게 될 것이지만,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어야 이루어질 것이다(고전 15:35-54).

무엇이 영원할까?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 영원한 존재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 의로운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소망을 품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일, 육체의 죽음에 관한 두려움과 사후 세계에 관한 두려움을 없애는 일 등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행복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 다른 사람들과 나 사이, 그리고 나 자신과 나 사이에 적절한 관계가 맺어짐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었음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신다는 사실’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한 안정감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니 나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자리를 잡는다. 그 모든 것이 내면에 자리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사람으로 입증되었음을 믿기에 위에 언급한 모든 소망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영혼은 평화를 누린다. 그리고 그 평화로부터 모든 사람이 바라고 그리던 행복, 즉 영혼의 행복이 온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감정 가운데 행복과 가장 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확신 속에 사는 일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최선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사는 방법이다.

간단히 정리해 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살자.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평강, 즉 평화가 깃들 것이다. 올바른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영혼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영혼에 평화를 가져오는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필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의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큰 행

복을 느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행복한 관계를 위한 실천적 조언

필자가 결혼 상담을 해 주면서 알게 된 사실은, 배우자에게 ‘충고’를 하는 경우 많은 좌절과 불안감이 생기며, 그러한 좌절과 불안감 크게 생기는 쪽은 충고를 하는 쪽이라는 점이다. 배우자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지닌 경우, 그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말한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당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관해 염려하지 말라.
2. 당신이 상관할 필요가 없는 일에 관해 염려하지 말라.
3.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해 염려하지 말라.
4. 당신의 일을 당신 자신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싶듯, 상대방에게도 그의 일을 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라.
5.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당신 방식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6. 당신이 충고한 내용대로 상대방이 행하지 않는 경우 실망하지 말라. 충고를 꼭 해야 하겠다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조언이지 명령이 아님을 기억하라. 당신은 조언을 했을 뿐이므로 상대방이 당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더라도 염려할 바 없다. 당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내린 결정에 따라 생기는 결과에 관한 책임은 상대방이 져야 한다.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지더라도 그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다!
7.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상대방이 처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마다 다양한 해결책이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하는 충고가 최선이 아닌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들만이 자기 충고를 최고로 여긴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교만한 마음은 늘 상처를 받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늘 불행하다.
8.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분야에 관해 충고하지 말라. 사람들은 당신이 전달하는 모든 충고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 정도로 여기게 될 것이다.
9. ‘나라면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충고를 하지 말라.
10. 충고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는 점을 기억하라. 당신의 충고를 따랐는데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 파수리

Parsley, Malcolm. "A Meditation and Some Practical Advices on Happiness."

건강한 교회의 표지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27 (새번역. 밑줄은 필자가 강조한 것임)

건강한 교리	· 디도서 2:1	
건강한 지도부	· 사도행전 20:28	
건강한 믿음	· 디도서 1:13	
건강한 일치	· 요한복음 17:20-22	(마 16:18; 벰전 2:5)
건강한 행함	· 디도서 3:1	누가복음 15장 27절에는
건강한 언행	· 디도서 2:2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건강한 예배	· 요한복음 4:23-24	헬리어가 사용됨.
건강한 가르침	· 디모데후서 4:1-4	도표 왼쪽에 제시한 말씀들에는
건강한 연보	· 고린도후서 9:7-8	교회와 관련하여
건강한 열심	· 디도서 2:14	‘건강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사용됨.

Lupo, Robert C. “Signs of a Healthy Church” (2020).
The Voice of Truth International. Vol. 104, p. 2. Translated and adapted with permission.

모으면 잃고 잃으면 찾음(2)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25)

신앙의 문제에서 세상의 견해를 따르면
모으는 것 같으나 잃게 됨

가. “종교다원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견해. ‘종교다원주의’는 이슬람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를 동등하고 타당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4:6; 사도행전 4:12).

나. “보편구원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잘못된 견해. 보편구원론에서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러한 견해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된 가르침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 “교단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견해. 교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닌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모든 교단이 ‘그리스도교’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모든 교단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오해한다.

라. “선한 삶을 살면 영생을 얻는다”는 잘못된 견해. 놀랍게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세상을 떠난 분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을 떠올려 보자. “그분은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참 좋은 분이셨지요. 좋은 아버지셨고 좋은 남편이셨습니다. 참으로 가정적이셨어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고요.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 감옥에 갈 염려가 전혀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고인은 지금 천국에 계실 것입니다.” 고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드는 이유는 이 밖에도 다양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선하다’고 평가하면서 드는 여러 이유를 보면,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질 나이가 되었을 때 창조주께 대하여 죄를 범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요한1서 3:4; 마태복음 25:46).

신앙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며 잃는 것 같으나 찾게 됨

가. 진리는 다원주의적이지 않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요한복음 14:5-6).

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마태복음 7:13-14, 21-23).

다. 성경에서는 교단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 교단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다원주의’와 ‘보편구원론’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기꺼이 동의한다. 하지만 매우 이상하게도 교회의 조직 문제를 포함하여, 그들이 속한 교단에서 교단과 관련하여 가르치는 내용의 대부분을 신약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를 생각해 보자.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세워

진 교회가 하나의 교단이었는가? 그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뉘어 다양한 이름을 지닌 채 각 분파를 만든 사람이 제시한 신조에 따랐는가?

사도행전 전반에는 바울이 개척한 여러 지역교회가 등장한다. 그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바울이 이곳저곳에 여러 교단을 세웠는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침례교회를 세우고 더베에 갔을 때는 가톨릭 교회를 세우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 일곱 지역교회는 또 어떠한가? 그 교회들이 일곱 개의 서로 다른 교단이었는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를 일곱 교단이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방금 살펴본 여러 가지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릇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종류의 교회를 하나님이 똑같이 인정하신다고 믿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은 신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모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자. 여러 교단으로 인해 생긴 장애물을 제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하나뿐인 그 교회로 돌아가자(사도행전 20:28; 에베소서 1:22-23; 4:4).

라. 복음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때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스스로 선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이를 찾음으로써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는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믿어야 한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로마서 10:17; 히브리서 5:8-9; 데살로니가후서 1:7-10).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믿음을 통하여 우리 것이 된다(에베소서 2:4-10).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손을 뻗어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선한 삶을 살며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렇게 작용한다(에베소서 2:10; 야고보서 2:14-26).

거짓 종교들의 가르침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잃어버

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나는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교단 개념이 없는 하나의 교회에 대해 말씀한다. 그 교회는 예수께서 건축자가 되시고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이다 (마태복음 16:18).

경제 문제에서 세상의 견해를 따르면 모으는 것 같으나 잃게 됨

가. 세상에서는 탐심과 욕심을 바람직한 덕목으로 본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헬라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헬라어: 영혼]과 바꾸겠느냐?”(문장 부호 첨가). 여기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역설이 담겨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의 우상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거하게 된다. 복음서에서 보는 젊은 부자 관원의 경우에도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우상을 버리기 원하셨지만 젊은 관원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마가복음 10:21-25).

나. 세상에서는 희생하며 주는 것을 어리석게 여긴다.

다. 세상에서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힘이 각자의 능력과 전략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라. 세상에서 청지기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때는 돈을 버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우뿐이다.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진실성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경제 문제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면 잃는 것 같으나 얻게 됨

가.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을 덕스럽게 여기신다(고린도후서 9:6-7).

나. 하나님께서는 희생하며 주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신다. 받으려는 마음 없이 주면서 사는 사람은 참된 행복의 비밀이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한 배움은, 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고린도후서 9:10-14; 야고보서 1:17)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다.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힘은,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신명기 8:18).

라.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원칙 가운데 하나로 여기신다(마태복음 25:14-30).

이 타락한 세상에 재물을 쌓게 되면 심판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천국에 보물을 쌓게 되면, 영원한 것들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마태복음 6:19-20).

글쓴이: 셰인 피셔

Fisher, Shane. "Paradoxes of Christianity: Losing Through Saving / Finding Through Losing," Part 2. *The Voice of Truth International*. Vol. 103, pp. 49-51.



지혜가 담긴 책들에 비추어 본 행복과 근심

“사람에게는 ...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전도서 2:24 새번역).

우리 몸과 영의 상태를 보면,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근심과 고통에 시달릴 때가 있다. 솔로몬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타당한 근거를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익혀 얻는 행복이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어디서 위로를 얻는지 생각해 보자. 물론 아래에 정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전부는 아니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슬픔을 이겨내며 살 수 있도록,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

삶에 위로가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계속 채워진다는 사실이다(참조: 전도서 3:12, 13; 5:18; 8:15; 9:7).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전도서 2:24).

또한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위로를 얻는다(참조: 전도서 3:13, 22; 5:18).

“사람에게는 ...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전도서 2:24 새번역).

우리의 소유물도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참조: 전도서 9:8).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

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
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전도서 5:19, 20. 문장
부호 첨가. 이하 같음).

아내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게서 위로를 얻는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전도서 9:9).

이 밖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인으로 솔로몬이 언급한 것으로는
‘선한 언행’, ‘지혜로운 자녀’, ‘성공적인 성취’, ‘몸이 느끼는 다양한 안락
함’ 등이 있다. 의로운 삶에 따른 모든 열매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
져온다. 그러한 행복은 쾌락만을 추구하는 죄인이 경험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참조: 전도서 2:26).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
게 하느니라”(전도서 11:17).

일상생활에서 겪는 근심과 고통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에는 어리석고 파괴적인 것들도 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술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
것도 헛되니라”(전도서 7:6).

당장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불행으로
이끄는 일들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에는 그러한 성격
의 것이 많다. 그들이 만들어낸 눈앞의 즐거움은 결국 세상에 슬픔을 더
하고, 일시적 즐거움에 빠져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근심과 고통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사실 산다는 것은 근심과 기쁨
이 끝없이 섞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잠
언 14:13).

현실에서 고려하는 영역이 클수록 그에 따라 느끼는 근심도 커진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1:18).

근심에는 긍정적 가치가 담겨 있기도 하다. 근심은 우리를 더 신중한 사람으로 만든다. 삶은 신중하게 살아갈 때가 제일 좋다.

지혜로운 사람은 근심이 이 땅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이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도 잊지 않는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칫집에 가 있다”(전도서 7:24 새번역).

결 론

기쁨과 근심이라는 감정, 즐거움과 고통이라는 감정을 함께 지니고 사는 것은 지혜를 키우는 데 자국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데 격려가 되곤 한다. 기쁨과 근심에 관한 지혜를 삶에 올바르게 적용할 경우, ‘이러한 행동을 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의가 늘 충만하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선을 행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한 결과만 놓고 보면 악을 더 행하여도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전도서 8:11).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지금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이 근거 없는 죄책감일 수도 있지

만, 많은 근심이 밀려오고 있다면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전도서 7:14).

근심과 기쁨을 느끼는 것은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잠언 14:10).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잠언 15:15).

고난받는 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잠언 25:20).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이하 번역 생략]

글쓴이: 월터 포터

Porter, Walter. “Feelings: Happiness and Sorrow.”

A Lesson from the PREACHING FROM WISDOM LITERATURE lessons.

THE ORIGINAL ENGLISH EDITION OF THIS STUDY APPEARED IN TRUTH FOR TODAY, PUBLISHED BY TRUTH FOR TODAY WORLD MISSION SCHOOL, INC., 2209 BENTON, SEARCY, AR 72143 USA. THIS UNOFFICIAL TRANSLATION IS DISTRIBUTED WITH THE PERMISSION OF TRUTH FOR TODAY WORLD MISSION SCHOOL.

© Copyright, 1985, 2004, 2021 by Truth for Today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실까?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들 가운데, 시간이 흐르며 점점 널리 퍼지는 것들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면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다. 아래에 정리한 두 가지 사례는 가족과 오랜 친구들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사례 1]

‘크리스천’ 남자 한 사람이 있다. 지역교회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가 단골로 이용하는 마트에서 한 여자를 만난다. 여자는 남자를 따뜻하게 대하고,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 싹튼다. 두 사람은 이메일 주소를 서로에게 알려주고 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결국에는 주고받는 사연에 강렬한 욕정이 담기게 된다.

어느 날 남자는 아내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다.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났고, 전에 누려본 적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다. ‘내가 크리스천이니 하나님도 내가 행복해지기 원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그에게는 새 여자와의 관계가 그가 꿈꾸어 온 모든 것들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그는 자기 나름의 ‘행복론’으로 부도덕을 ‘정당화’한다.

[사례 2]

젊은 ‘크리스천’ 여성이 있다. 평범한 대학생 정도의 나이다. 그녀의 내면에, 식구들에 대한 불만, 교회 생활에 대한 불만 등이 계속 쌓인다. 주변 환경이 편안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자기 환경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녀는 꼭 집어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며, 성취감을 얻기 위한 탐색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느낀다. 그녀는 말한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길 원하셔.”

그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챙겨 떠난다. 흉악하기로 소문난 대도시로 이주한다. 그녀에 관해 들려오는 마지막 소식은 유흥가 어디에서 일한다

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 완전히 사라진다. 연락이 완전히 끊긴다. 그녀는 그토록 찾고 싶어 하던 ‘행복’을 찾았을까? 그렇다면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위에 소개한 두 가지 실화는 (세부적인 내용이 각색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로서,) 누가복음 15장에 담긴 이야기, 즉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사례와 다르지 않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낸 작은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방탕하게 유산을 탕진하는 아들은 착각에 빠져 자기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나타낸다.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를 이미 읽은 독자들이 잘 알고 있듯, 탕자는 결국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을 찾는 신세가 된다. 악취를 풍기는 돼지들과 이웃이 되어 살게 된 상황, 거기에는 ‘행복’이 전혀 없었다. 결국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즉 “제정신이 들어서”(새번역)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때야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감이 자리를 잡았다.

행복과 관련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의미는, 큰 노력을 기울여 힘들게 행복을 찾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의미와 다르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감정 용어 사전’에서 ‘행복’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목표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한 신성한 뜻을 명백히 거역하는 것들은 행복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모세의 경우

모세의 기질이 어떠했는지 설명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때때로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²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²⁵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²⁶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23-26)

모세가 실제로 겪은 일들을 보면, 그는 “낙을 누리는 것”을 멀리했다. 진정한 ‘행복’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모세가 한 일은 달랐다. 모세가 알고 있던 ‘행복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낙을 누리는 것”, 즉 “향락을 누리는 것”(새번역)라는 표현에는 한 쌍의 단어, 즉 ‘쾌락’과 ‘즐김’이 묶여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삶에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수준의 쾌락을 경험한다. 하지만 ‘쾌락’과 ‘즐김’은 궁극적 의미의 ‘행복’이 아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는 자, 마약중독자, 음행하는 자 등에게 ‘행복’을 상으로 주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그러한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를 심히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행복’과 관련하여 그 용어를 너무 가볍게 사용한다. 딸의 결혼식을 앞둔 아빠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새 차를 뽑아서 ‘행복’하다.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는 이유로 아주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처럼 사람들이 ‘행복한’ 상태가 되는 가벼운 방법은 끝없이 많다. 일반적으로 볼 때, ‘행복한’이라는 말은 인간사

의 극히 세속적인 경험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보면 그토록 많은 영혼이 ‘불행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행복한’이라는 뜻의 영어 ‘해피(happy)’가 영어 성경에 28회 정도 나온다(KJV·ASV).* 그 성경 구절들을 연구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행복은 항상 영적인 경험과 관련된 것임이 드러난다. 그러한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는 일이다.

편집자 註

*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피하면서 ‘복되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므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횟수가 「킹제임스성경」과 큰 차이를 보인다.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성경 번역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 하나님이 뜻하시는 객관적 ‘복됨’과 (2) 평범한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의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볼 때, ‘행복’이라는 용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개역개정판」, 「새번역」, ESV, NASB, NET, NIV 등의 자세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행복’ 또는 ‘복됨’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아쉬레(=아쉬레이. אֲשֵׁרִי)**이다. 이 단어는 감탄 형식으로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 “복있는 사람은…”이라고 번역한 부분에는 “행복하여라!”, “복되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편집자 註

** 에쉐르(אֲשֶׁר) 또는 아쉬르(אֲשֵׁר)의 복수형.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복수형 ‘아쉬레(이)’만 사용하기 때문에 단수형이 낯설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참조: HALOT, BDB 히브리어 사전.

구약성경에서 행복의 의미가 잘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행복하여라, 야웨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시편 144:15)
-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편 146:5)

- [참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잠언 3:13)
-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잠 28:14)
-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시편 1:1-2 공동번역 개정판).

영국의 철학자 C. S. 루이스(1898-1963)는 그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찾는 것이 헛된 시도임을 잘 설명했다. 사람은 자신의 목적, 그리고 참된 행복을, 창조주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점에 관해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분리된 행복을 주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을 벗어난 행복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영어판 54쪽).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고(이사야 43:7) 그처럼 가슴 떨리는 기쁨 외에는 인간 존재가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

신약성경에서 그리는 행복

신약성경에서 행복이라는 개념을 전달하는 용어는 마카리오스(μακάριος)로서, 대부분의 경우 ‘복이 있는’, ‘복된’ 등으로 번역한다.* 신약성경 헬라어 본문에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50회 정도 나온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산상수훈(山上垂訓)’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었고, 계시록에서도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다(계 1:3; 14:13; 16:15; 19:9; 20:6; 22:7, 14).

편집자 주

* ‘행복하다’라는 용어를 성경 번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로 공동번역개정판을 들 수 있다. 계시록 1:3을 예로 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일들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계 1:3 공동번역개정판).

스코틀랜드의 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마카리오스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연구 가운데 하나를 내놓았다(영어판 I.89). 바클레이의 설명을 보면, 마 카리오스는 “기쁨을 묘사하는데, 그것은 비밀을 자기 내면에 간직한 기쁨 이고, 평온하고 견줄 바 없는 자족적 기쁨이며, 살면서 겪는 모든 우연과 기회에서 완전히 독립된 기쁨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과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은, 단어가 지닌 특성이 용어 자체에 담겨 있다. ‘행복(幸福)’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 ‘행’은 ‘요행’, ‘좋은 운(運)’ 등을 의미한다. 행복은, 행복과 불행을 판단할 때 우리가 흔히 보이는 모습처럼,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일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은 절망에 빠질 수 있다.

유명한 ‘산상수훈’의 도입 부분(마태복음 5:3-12)에서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다른 말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셨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면 자기가 영적 빈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죄를 뉘우치며 우는 사람, 그렇기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신성한 통제에 겸손히 복종하는 사람, 진정한 충족감을 주는 영적인 울바름을 향하여 끊임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타인을 향하여 기꺼이 긍휼을 베푼다. 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청결한 (불순한 동기가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한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평강, 즉 평화가 늘 깃들도록 노력한다.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영적인 헌신의 자세가 강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박해가 닥치더라도 그가 지닌 기쁨을 잃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경우를 떠올리게 된다. 옷을 벗긴 채 매질을 당하여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상태로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다(사도행전 16:23-25).

결 론

우리가 경건함을 저버린 채 일시적이고 얇은 감정들에 사로잡힌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한 감정들은 스쳐 지나가는 덧없는 희망일 뿐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일들과 비교할 때 그 모든 감정들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하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려면, 일시적 감정에 휩쓸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누가복음 22:40*).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시적 감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적으로 퍼져 있으며,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편집자 註

* 저작권 만료와 함께 무료 사용이 가능해진 「개역한글판」 눅 22:40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번역되어 있고, 한글판 「흠정역」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볼 수 있다. 이는 ‘시험’과 ‘유혹’을 헬라어 성경에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가며 적절한 의미를 찾아 읽어야 한다.

참고 문헌

- Barclay, William (1975), *The Gospel of Matthew — Vol. 1*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번역본: 바클레이 주석 시리즈
- Lewis, C.S. (1975), *Mere Christianity* (New York: Macmillan). 번역본: 『순전한 기독교』

글쓴이: 웨인 잭슨

Jackson, Wayne. “God Wants Me To Be Happy.”
ChristianCourier.com. Access date: March 17, 2021. <https://www.christiancourier.com/articles/1270-god-wants-me-to-be-happy>

예수님도 감정을 표현하셨을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神性)을 지닌 존재인 동시에 피와 살이 있는(요한복음 1:14) 인간이셨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우리와 똑같이 지니고 사셨다. 예수께서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셨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셨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은 무엇이였을까? 예수께서 느끼신 감정을 주제로 연구하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인 동시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예수님의 눈물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주 예수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면서 그를 “간고(艱苦)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疾苦)를 아는 자”라고 묘사했다. 히브리어 본문에 사용된 표현을 직역하면 예수께서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사람”이셨다. 신약성경에는 예수께서 ‘우신 일’에 관한 기록이 세 차례 나온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자.

예수께서는 친구들을 위하여 우셨음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무치는 감정을 묘사하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다크뤼오(δακρύω)로서, 신약성경 말씀에서 이곳에만 사용되었다. 문자 그대로의 뜻은 ‘눈물을 흘리다’이다. 동정심을 느끼며 가만히 우는 모습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가만히 눈물을 흘리신 감동적인 장면은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편집자 註

* ‘눈물을 흘리다’라고 번역한 부분이 헬라어 본문에서는 하나의 단어[다크뤼오]로 되어 있으므로 헬라어 본문의 짜임새를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번역본에서는 “예수께서 우셨다”[“Jesus wept.”]라고 하여 두 개의 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하여 주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소망 없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참조: 데살로니가전서 4:13). 죽음을 통해 나사로는 오히려 더 좋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눈물은 외로움의 눈물도 아니었다. 친구 나사로가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나서 가족에게 돌아와 함께 지낼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가신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신 일과 관련하여, 나사로가 부활 후에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을 예견하고 우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참조: 요한복음 12:10). 하지만 그보다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여러 사람이 표현하고 있던 아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공감하셨기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라는 견해가 더 적절해 보인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붙잡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11:33-34상반. 문장 부호 추가).

지극히 크신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감정을 실제로 공유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른다(참조: 히브리서 2:17).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타인과 진정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참조: 로마서 12:13).

예수께서는 적대자들을 생각하며 우셨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한 예루살렘을 보시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멀지 않아 겪게 될 극도로 힘든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며 심한 고통을 느꼈고 소리 내어 우셨다(헬라이어 클라이오에 담긴 의미임. 누가복음 19:41을 보시오).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겪을 끔찍한 상황을 예견하며 커다란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셨음이 분명하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구원자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러한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벌이 내려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예루살렘이 겪을 파괴적 상황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불손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임하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40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겪게 될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본질적 비극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에 불과했다(마태복음 23:34-36; 데살로니가전서 2:16). 그러한 그들을 향해 느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예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비극을 생각하며 우셨듯,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깊은 아픔을 느껴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우셨음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홀로 우신 기록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다른 사람의 기록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통하게 우신 적이 있음이 암시되어 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겪어야 했던 힘든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었다(히브리서 5:7). 아마도 그의 눈물은, 이제 곧 일어날 비극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임이 너무도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에, 잃어버린 양과도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흘리신 눈물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께서 혼자 흘리신 많은 눈물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혼자 짊어지는 일, 즉 나무 위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야 하는 일을 생각하는 동안 그의 거룩한 영혼에 밀려온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할 것이다(갈라디아서 3:13; 히브리서 12:2).

아마도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흘리신 많은 눈물은, 십자가에 달린 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신 고통스러운 외침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구약성경 시편 제22편 말씀을 암송하셨다. | 관련 기사가 수록된 *Christian Courier* 인쇄본: July 1988).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웃으셨을까?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웃으신 경우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한 피상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행복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전혀 없다’고 균형 잃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며 가르치시는 동안 들려주신 예화를 보면 유머를 곁들이신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내려 애쓰는 모습,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 사람의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어 툭 튀어나오기까지 한 모습(마태복음 7:4); 어떤 사람이 하루살이를 조심스레 잘 걸러내는 모습, 그런데 그 사람이 낙타는 그냥 삼키는 모습(마태복음 23:24) 등은 유머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의 유머 감각에 더하여,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 경우에 ‘기뻐하셨음’을 알려준다. 주님의 감정 가운데 이 부분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에 기뻐하셨음

잃은 양의 비유에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길을 잃은 양을 근심스럽게 찾던 목자는 잃었던 양을 발견하고는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온다. 거기에 더하여 그는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말한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누가복음 15:5-6 사변역).

예수께서 선한 목자라는 점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요한복음 10:11, 14). 그러므로 잃은 양 이야기는 잃었던 양이 원래의 우리로 돌아올 때 구주께서 느끼시는 감정을 반영한다.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의 길에 접어들었던 영혼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격려가 되는 일은 없다.

예수께서는 사탄을 이긴 승리에 기뻐하셨음

70인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와서 사탄의 세력

을 이긴 일을 보고할 때 주 예수께서는 기뻐하셨다(눅 10:21).

예수께서는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기뻐하셨음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목격하는 기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셨다. 그 일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요 11:15).

예수님의 감정 두 가지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일에 기쁨과 슬픔을 모두 느끼신 점이 흥미롭다. 단지 20개 절 사이에서(15절과 35절) 두 가지 감정이 배치되어 있다. 슬픔은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

예수께서는 부활을 기대하며 기뻐하셨음

예수께서 부활을 기대하며 기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있었고(시 16:9 | 참조: 행 2:26) 실제로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새번역).

결론적으로, 복되신 주 예수의 마음속에 슬픔과 기쁨을 가져온 일들은 세상에 속한 일상적인 문제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흥미를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 보이신 모습과 달리 우리가 지닌 여러 감정은 일상적인 문제들에 묶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더 높은 곳에서 작동했다. 이 땅에 속한 환경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지닌 특성을 훨씬 더 넘어선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

[이하 번역 생략]

글쓴이: 웨인 잭슨

Jackson, Wayne. “The Emotions of Jesus.” ChristianCourier.com. Access date: March 22, 2021. <https://www.christiancourier.com/articles/20-the-emotions-of-jesus>

시편산책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많은 박해와 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구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고초를 겪으셔야 했는데 그 절정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표적인 모습을 지니고 예언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에 담긴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전체 그림을 우리 눈앞에 드러냅니다. 그러한 결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크게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 지 상고하리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베드로전서 1:10-12).

시편 제22편은 기원전 1,000년 무렵,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쯤 전에 다윗이 고난 가운데 쓴 시입니다. 시를 끝까지 읽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궁극적 승리에 대한 찬양임을 알 수 있고, 예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¹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²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

⁶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 7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 8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 9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 10 내가 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 11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 12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 13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 14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 15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 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 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 18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 19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
- 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
- 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 28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 29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 30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 31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소유해야 할까?



신약성경 헬라어 본문에서 ‘욕구하다, 갈망하다, 탐내다’ 등의 의미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동사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1. 에피뒤메오($\epsilon\pi\iota\theta\upsilon\mu\acute{\epsilon}\omega$)는 ‘~을 향해 욕구를 고정하다’라는 의미이다.
2. 젤로오($\zeta\eta\lambda\acute{o}\omega$)는 개역개정판 고린도전서 13:4에서 ‘사모하다’라는 긍정적 의미로 번역한 단어이다. [한편, 젤로오는 배타적인 성취나 소유를 갈망하는 상태, 즉 ‘격분하다’, ‘시기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음.]
3. 오레고(오레고마이. $\omicron\rho\acute{\epsilon}\gamma\omicron\mu\alpha\iota$)는 ‘~을 얻고자 (손을) 뻗다’, 즉 ‘~을 갈망하며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오레고와 오레고마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Vine’s Expository Dictionary > Desire, Desirous).

어떤 대상을 ‘갈망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썼다(골로새서 3:5).

죄로 이어지는 ‘갈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대상을 향해 ‘욕구를 고정’하고 그 대상을 ‘얻고자 손을 뻗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갈망’의 성격은 그 대상이 무엇, 또는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한 이유에서, 위에 소개한 헬라어 단어들은, 추구하는 대상이 선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갈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안다(참조: 골로새서 3:1-3; 요한1서 2:15).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주위 사람들이 ‘갈망’하는 사람이 되려는 목표를 지닌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 할 때,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진심과 열정을 담아, “당신이 지닌 것들을 나도 [정말] 갖고 싶다”는 갈망을 전해올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귀한 삶은 친구·친척·동료·이웃 등의 눈에 떨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두드러짐은 세상의 기준이나 물질주의적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 주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목적이 바로 그러한 ‘목적’의 대상이 되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지닌 것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진정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를 지니고 있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로마서 5:1 새번역). 돌음체는 필자가 강조한 것임. 이하 같음).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평온한 마음을 그리스도인이 지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이러한 “화평”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에 참여한 사람이 아주 멋지고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과의 평화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음을 아는 일이며(에베소서 2: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죽으셨음을 아는 일이다(요한1서 2:1-2).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내 쪽에서 해야 하는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각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셨다(히브리서 5:9; 마가복음 16:16).

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알 때에 나에게 평화가 깃든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이다(빌립보서 4:7 흠정역).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지니고 있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일깨워준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로마서 5:2상반 | 헬라어 직역: “그[=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왔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위에 인용한 말씀의 바로 앞 절(로마서 5:1)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무죄판결은 죄가 없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 하였으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로마서 3:23).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셨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행동으로 옮기신 일이다. 하나님이 너그러이 호의를 베푸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에 참여한다. 그 호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서 얻어내거나 자격을 갖추어서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즉 은혜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지니고 있음’

“...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로마서 5:2하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미래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판 날이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디모데후서 4:1).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히브리서 9:27).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관해 확신을 지닐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날까지 충성스러움을 유지하면 그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요한1서 5:13; 계시록 2:10).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지런히 섬기며 사는 자세를 지녀야 마땅하다(히브리서 4:11).

그리스도인이 지니고 있는 소망을 묘사하면서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인이 맞이할 미래는 생각할수록 놀랍다. ‘놀랍다’는 표현은 아주 좋은 것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놀랍다’는 말로 부족해 보인다. 우리를 지으시고 속량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은 참으로 멋진 일일 것이다.

미래를 향한 소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의 영적인 몸을 갖게 될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될 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갖고 계신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일 것이다(빌립보서 3:20-21; 요한1서 3:1-3).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바라본다. 미래의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닐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지니고 있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로마서 5:2-5)

위에 인용한 부분에는 ‘삶의 의미에 관한 통찰’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면서 겪는 걱정거리와 비극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힘든 시기에도 기쁨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바라볼 수 있다.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영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지니고 있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義人)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善人)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로마서 5:6-9).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웠고 그 사랑을 직접 경험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증거를 보았고, 그 사랑으로 인한 여러 혜택을 누려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는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진다(에베소서 3:17-19).

그리스도인이 지닌 것들은 온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볼 것이고, 우리가 갖게 된 것들을 그 사람도 갖고 싶어 할 것이다.

글쓴이: 웨인 잭슨

Jackson, Jason. “I Want What You Have.” ChristianCourier.com. Access date: March 25, 2021. <https://www.christiancourier.com/articles/1174-i-want-what-you-have>

균형잡기

보여주기 신앙 VS 보이는 신앙

1.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신 태도 가운데 하나가 ‘위선’입니다. 성경에서 ‘외식(外飾)’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6:2 “그러므로 구제(救濟)할 때에 외식(外飾)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外飾)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에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7:5 “외식(外飾)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2. 남의 눈을 의식하면 위선에 빠지기 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은 가만히 남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사도행전 16: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빌립보서 3:17(새번역)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복음은 세상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사도행전 2:37). 본보기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복음으로 이끍니다.

디모데전서 3:7 [지역교회의 감독은] 또한 외인(外人)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새번역: 좋은 평판을 받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집을

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2 새번역)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1세기 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들은 함께 슬퍼했다. 함께 슬퍼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사실 때에도 보이신 모습이다. 나사로가 숨을 거두고 친구들이 모여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요한복음 11:19) 예수께서 도착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우셨다(요한복음 11:35). 예수님의 승천 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스테반이 순교당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크게” 울었다(사도행전 8:2). 도르가가 숨을 거두었을 때의 모습은, “모든 과부가 ...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보이거늘...”이라고 묘사되어 있다(사도행전 9:39).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권고 내용대로 살았다(로마서 12:15하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에게 관해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데살로니가전서 4:13-18. 문장 부호 첨가. 돌음체는 필자가 강조한 것임).

위에 인용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8절 말씀은 슬픔을 극복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1) 내용 면에서. 슬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위로의 말씀에 담긴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그와 함께 있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2) 방법 면에서. 바울은 이 내용을 갖고 “서로 위로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다. 슬픔은 나누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은 함께 울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울어야 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교회는 ‘서로에게 관심을 쏟는 공동체’였다.^{미주1}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임이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시사항을 보더라도, “서로 사랑하라”(요한1서 4:7), “서로 문안하라”(로마서 16:16), “서로 돌아보라”(히브리서 10:24), “피차 권면하라”(히브리서 3:13),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로마서 12:10), “서로를 받아들이라”(로마서 15:7), “서로 권하라”(로마서 15:14),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에베소서 4:32) 등 ‘서로’ 주고받는 것에 관한 내용이 많다. 교회의 지체 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사람들이 유족들을 사랑으로 감쌌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고 슬퍼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찾아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사람들의 위로를 함께 찾아야 한다. 위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위로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받는 위로

소중한 대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슬픔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의 슬픔을 여러 사람과 나눌 것

오랜 세월을 걸쳐 전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슬픔은 공동체의 경험이었다.² 마을이나 부족의 구성원이 죽으면 사람들은 함께 슬퍼했다. 장례식이나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은 고인의 가족을 위로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 떠났음을 인식하게 하며, 사회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이었던 사람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장례식은 중요하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장례식은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내어 사람들이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다.

애도를 마무리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에게 특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웃들, 특별한 사업 공동체, 대부분의 종교 공동체, 건강 관리 단체, 고인의 친구 및 동료(이들 가운데 다수는 다른 식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음) 등이 포함된다.³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고인의 가족은 아니지만 장례식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역시 고인의 삶에서 일부를 차지하던 사람들이었기에, 고인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표현하면서 애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장례식은, 특정한 죽음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함께 슬퍼할 수 있게 한다. 로버트 슬레이터(Robert Slater)는 다음과 같이 썼다.

강렬한 감정에 휩싸이는 시기에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지지를 크게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례식이 그러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혼자 슬퍼하는 것은 극도로 힘든 일일 수 있다. 슬퍼하는 사람 혼자서 모든 감정을 자기 자신 안으로 흡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나눔 기쁨’은 ‘커진 기쁨’이고, ‘나눔 슬픔’은 ‘줄

어든 슬픔'임이 분명하다. 격렬한 감정을 경험할 때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 사람들도 고인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고인이 기여한 바를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고인의 떠남을 슬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장례식 진행 절차가 어떠한지 하고 유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등에는 절대불변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고인이 떠남으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는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는 데 있다.

당신의 슬픔을 개인적으로 나눌 것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고인의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위안이 있지만, 그에 더하여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첫째, 다른 사람과 슬픔을 나누려면 사람들 앞에 열린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기 주저하기 때문에 슬픔을 극복하는 데 방해받을 경우가 있다. 사람은 자기 말에 공감하며 들어줄 사람과 슬픔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 상담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에서는 애도 기간을 거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과정을 개설하기도 한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행동이 아니다. 슬픔을 안으로 껴꾴 눌러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만드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만든다. 깊은 우울 상태에 빠져 신체적·정신적 증세가 드러나는 등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경에서는 슬픔을 억누르는 태도를 권장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슬픔을 억지로 참는 사람들이 아니었다.⁵ 우리도 슬픔을 억누르면 안 된다. 당신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감

정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당신은 갈등을 겪던 영혼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⁶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야고보서 5:16)는 말씀에서 보듯, 성경에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충고한다. 이 말씀은, 죄를 범할 정도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밀려올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백하며 … 기도**”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도움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다.⁷

당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지만, 당신의 감정을 누군가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이제 내가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기꺼이 도움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사람 가운데 다수가,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잃고 나서 슬픔에 빠져 있음을 알기에 당신을 돕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독립성이 매우 강한 나머지⁸ 남의 도움을 받기 싫어한다. 하지만 당신이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베푸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설령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돕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사도행전 20:35). 아울러, 당신은 앞으로 이어질 회복 과정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을 염려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 속 깊이 와닿게 되기 때문이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당신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히 말해줌으로써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신체적인 면에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리적으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지금 당신 곁에 없는 사랑하는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다면, 당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요청하라. 그냥 울고 싶는데 혼자 있고 싶지는 않다면, 누군가에게 곁에 있어 달라고 요청하라. 당신이 어떤 요청을 하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기쁘게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남들이 잘못된 말을 할

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로하고자 할 때에는 말을 매우 조심해서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인지라, 사랑하는 대상을 잃은 사람에게 해 주는 말이 위로를 주기는커녕 더 큰 슬픔을 안기는 경우가 생긴다.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적절하지 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위로받는 입장에 있는 당신이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 실수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린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대방의 어색한 말 뒤에 놓여 있는 ‘좋은 마음’에 고마워하는 것이다. 비록 상대방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말을 당신에게 했지만, 그가 진심으로 당신을 위로하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하라. 말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품은 진심에서 위로를 받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받는 위로

당신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푼다면 그것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은 자기 내면만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보살피기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시기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즉 어느 정도 이기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용서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상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각을 바깥으로 돌리기 시작해야 한다. 당신 자신에 관한 생각, 당신의 슬픔에 관한 생각 외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다.⁹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슬픔에서 회복되는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애도 과정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교회가 하는 일에 자원하여 나설 수도 있을 것이고, 교회와 관련된 명단 관리나 이웃돕기 등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노약자, 장애인, 극빈자 등)을 찾아가

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일에 참여하든,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도로 섬길 수 있다.¹⁰

바쁘게 선을 행할 때 당신은 여러 가지 일을 이루게 된다. (1)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마태복음 5:16). (2) 당신 자신에 관한 생각을 내려놓게 된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아픔으로부터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 (3) 당신은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힘을 쏟기 시작하게 된다. 이는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위에 적은 이유에 더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이시다(고린도후서 1:3하반, 4. 돕음체는 필자가 강조한 것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만드신다. 사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도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고난을 경험하는 동안에 배운 그것을 지금 고난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다면, 당신이 경험한 상실은 헛된 잃어버림이 아닐 것이다. 랜디 벡톤(Randy Becton)은 ‘평생 깊이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낸 70대 여성과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노부인이 말했다. “이제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필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하면서 섬길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 지혜로운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고통과 고난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다면 …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만 속하지 않는다. 그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형제이다.”

벡톤의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필자는 당신이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하지만 당신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자기 연민에 기초한 삶은 분노, 두려움, 큰

불행 등 쓰디쓴 열매를 생산한다는 사실이다.

당신 앞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도 그러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소중한 대상을 잃어버린 당신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특별하다. 슬픈 일을 겪은 당신이,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이끄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일은 당신이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통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한다.¹¹

결 론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다(창세기 2:18상반). 이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나 사실이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떠나 보낸 뒤에 혼자 있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돕자.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도 기간을 잘 통과하면서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글쓴이: 코이 로퍼

Roper, Coy. “Seeking Help from Others.”

The Christian and Grief, pp. 34-37.

미 주

¹James A. Fowler, “The Community of the Concerned,” Christ in You Ministries; <http://www.christinyou.net/pages/galcoc.html>; Internet; accessed 11 January 2011 [and 10 March 2021].

²“대부분의 인류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현재까지 발굴하여 연구한 문명 가운데 일정 형태의 장례 절차가 존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Robert C. Slater, “The Funeral: Expression of Contemporary American Bereavement,” in Michael R. Fleming and George E. Dickinson, *Understanding Dying, Death, and Bereavemen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5], 299).

³Ibid., 307.

⁴Ibid., 307.8.

⁵욥이 한 말들, 그리고 <시편>에 나타난 여러 표현을 보라. 다윗의 경우,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사무엘하 1:19, 27), 아들 압살롬의 죽음(사무엘하 18:33) 등과 관련하여 슬픔을 표현했다.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여러 형태의 모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모임은 다양한 종류의 작은 모임, 자조 모임, 슬픔 치유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하다.

⁷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감정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사역자나 상담가에게만 당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물론, 우울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⁸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잘 건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설픈 변장한 교만인 경우가 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교만을 지니라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⁹[배우자를 잃은 경우와 관련하여]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 재혼을 권하는 것으로 보이고(디모데전서 5:14) 나이 든 과부에게는 선한 일을 하며 살 것을 권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 든 과부들은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디모데전서 5:10 새번역).

¹⁰Jim Hughes, *Good Grief and How to Experience It*, Class Notes, Ministries with Senior Adults,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9-13 January 2006, 27. 바울은 그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했다(고린도후서 1:10, 11).

¹¹Randy Becton, “Does Anyone Understand My Grief?,” *Everyday Comfort: Meditations for Seasons of Grief* (Grand Rapids, Mich.: Baker Books, 1993), n.p.

THE ORIGINAL ENGLISH EDITION OF THIS STUDY APPEARED IN TRUTH FOR TODAY, PUBLISHED BY TRUTH FOR TODAY WORLD MISSION SCHOOL, INC., 2209 BENTON, SEARCY, AR 72143 USA. THIS UNOFFICIAL TRANSLATION IS DISTRIBUTED WITH THE PERMISSION OF TRUTH FOR TODAY WORLD MISSION SCHOOL.

© Copyright, 2011, 2021 by Truth for Today

찾으며 읽기

[바울이 말하되]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사도행전 20:33-35. 문장부호 추가)

성경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일단 의심부터’ 하는 부정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는 데 방해가 되지만,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는 진지한 자세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베뢰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사도행전 17:11 새번역)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복음서에는 그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비슷한 취지가 담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누가복음 6:38).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갈라디아서 1:11, 12).

제2장 긍정적인 삶 세워나가기

“인생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을 다음과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더 좋게 보이고 더 적게 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다.” 그런가 하면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연극이어라! 중요한 건 얼마나 길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했냐지.”

맛있는 전을 만들어 먹으려면 적절한 재료를 준비해야 하고, 재료를 적절히 섞어야 하며, 적당한 온도에서 부쳐야 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건축자재가 있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건축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요리나 건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삶을 세워나가려면 올바른 재료가 필요합니다. 좌충우돌식으로 삶에 접근하게 되면 좌절감과 불행감을 비롯한 온갖 부정적 영향이 밀려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삶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삶은 흥미롭고 긍정적인 모험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맡길 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최고의 수준까지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참조: 요한복음 10:10). 만약 지금 당신이 삶을 풍성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부정적인 재료들로 ‘삶이라는 집’을 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벽돌 쌓기를 ‘멈출’ 때입니다.

긍정적인 삶을 가꾸기 시작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1.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당신의 삶을 세워야 함(야고보서 4:14-20; 창세기 1:1; 고린도전서 3:11, 12).

2. 성경이 삶의 설계도가 되어야 함(디모데후서 2:15; 요한복음 8:32; 잠언 23:23).
3.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신뢰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함(로마서 8:28).
4.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태도를 발휘하기 시작하여 계속 유지해야 함(야고보서 1:18-22).
5. 열심을 내는 태도가 식지 않도록 마음속에 불꽃을 유지해야 함(계시록 3:19; 베드로전서 2:2).
6. 속량 받은 사람으로 매일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요한일서 2:2; 5:13).
7.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요한복음 4:24).
8. 당신 자신을 내어주고자 노력할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마음에 새길 것.
9. 시간을 내어 기도할 것(데살로니가전서 5:17).
10.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계시록 2:10).

편집자 **註**

*요 4:24에서 헬라어 ‘엔 프뉴마티’(ἐν πνεύματι)는 ‘영으로’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필자는 후자의 입장에서 예배의 특성을 설명한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세우려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음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긍정적인 삶을 세우기 시작하는 데에는 다음의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1) 긍정적인 삶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2) 긍정적인 삶을 세우기 위한 계획. (3) 긍정적인 삶을 세우기 위한 실천을 시작할 날짜.

추가 연구 및 토론 안내

관련된 성경 말씀

아래의 성경 구절들이 ‘긍정적인 삶의 첫 단계’라는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1. 요한복음 17:3; 14:6.
2. 로마서 8:1.
3. 에베소서 3:20, 21.

맞으면 T, 틀리면 F

1. T F: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2. T F: 하나님은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
3. T F: 긍정적인 삶을 세워나가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빈칸 채우기(한 칸에 단어 하나)

1. “긍정적인 삶을 _____ 나가려면 올바른 _____가 필요합니다.”
2. “이제는 _____ 벽돌 쌓기를 _____ 때입니다.”

생각하고 토론하기

1. 긍정적인 삶을 가꾸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는?
2. 사람들이 삶을 가꾼다고 하면서 택하는 그릇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살아있는 것과 정말로 살아가는 것 사이의 차이점은?
4. 이번 장에서 배우는 내용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은?

나의 질문 정리하기(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 1.
- 2.
- 3.

긍정적 행동의 증거

(안내)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아래의 일곱 가지 항목을 계속 채워 넣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삶을 가꾸는 데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1. 이번 주에 나에게 가장 크게 힘이 된 생각
2. 나에게서 좋아진 점
3. 내가 특별히 감사드리는 일
4. 이번 주에 내가 누군가를 도운 방법
5. 내가 팬찮은 사람인 이유
6. 한 줄 기도
7.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 일

글쓴이: J. J. 터너

Turner, J. J. *Building a Positive Life*. pp. 11-13.

Transalted with the permission of J. C. Choate Publications.

영적으로 온전한 태도

(연재 2/4)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사도는 예수님의 삶에서 강렬한 영향을 느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느낀 것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차가운 명령을 내보내는 커다란 권위가 아니라 따뜻한 기운이 지속적으로 몸을 뚫고 전해지는 것과도 같은 친근함이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겼고, 그러한 특권을 누리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자신의 영향 아래서 종의 태도에만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는 ‘우정’은 매우 친밀한 것이었다. 그러한 친밀함은, “**이에 열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와 같은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에는 과도할 정도로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

한 번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삶 속에서 모든 제자를 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친밀함이 제자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었다. 예수님의 친밀함이 사람들을 향해 더 크게 전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한 친밀감을 더 크게 느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친밀감을 드러내셨다. 그러한 친밀감이 아주 멀리 전파된 결과, “**모든 사람이 주(主)를 찾나이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정도였다.

물론 열두 사도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초기에는 예수님에 관한 호기심,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는 인기가 큰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줄지어 따르는 모습이 참으로 대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고 싶어 하던 전형적인 모습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

원”한 사람의 경우에서 잘 볼 수 있다. 비록 호기심과 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불과 몇 개월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의 충성심이 확고해졌다. 그 뒤부터는 예수께서 누리시던 인기가 악평으로 바뀌어도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구약시대 유대교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줄곧 함께 있었다.*

편집자註

*예수께서 십자가 형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곁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의 나약함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제자들은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믿음의 전환점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한 복잡함 때문에 제자들은 생각과 행동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복합적인 감정을 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해 겪은 모든 혼란을 넘어서,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께 ‘속해있다’고 느꼈다. 제자들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다는 사실을 영예로 여겼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하고자 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열렬히 사랑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알 수 없는 권위, 흥미를 갖고 따르게 만드는 신비로운 기적 등에 끌리던 마음이, 예수님과 보낸 3년의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선을 행하라’는 신비롭고 장엄한 명령을 따르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예수님께 헌신적인 사람이 된 그들은 그의 명령을 거역할 마음이 전혀 없게 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은 사람들이 곁을 떠날 때 헌신적인 제자들의 대답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사랑했다.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동행한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그의 선하심에 매료되어 매우 가까운 친구로 지낸 사람들이 있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러 여인,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마르다·마리아 가족 등이 그러한 친구들이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지니고 있던 사랑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에 관한 여러 기준이 끊임없이 제시된다. 오늘날의 전도자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 끝없이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을 익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로 살아갈 수 없다.

설교자를 둘러싼 오늘날의 모든 상황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에게 지적인 능력을 기계처럼 발휘하도록 과도하게 강요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도자는 다양한 생각거리를 최고의 법칙에 따라 나누어 담은 다음 잘 섞어서 설교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전도자 자신의 느낌은 극소량만 담게 된다.

전도자가 설교를 통해 회중을 더 잘 섬기고자 한다면, 전도자의 영혼이 느끼는 무게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영적인 무게는 ‘듣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말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낄 때 가장 잘 전달된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감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듣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심장이 따뜻해야 한다. 만약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말하기에만 몰두하는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에 그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전도자는 영적 인도자로서의 책임을 내버린 채 자기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다.

전도자가 준비하는 메시지가 지식 위주가 되고 전도자 자신의 모습이 지적인 영역에만 머무른 상태에서 최고의 설교 기법만 동원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도자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율림이 듣는 이들에게 전해질 수 없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청중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못한다.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하는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던 역동적인 영혼의 능력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설교 기법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예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복음서에서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이 자신들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친구들의 내면에 ‘깊이’가 자리잡기를 갈망하셨다. 그러한 깊이만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박해를 견딜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하신 앞날의 모습에는 가시밭길, 궁핍,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음,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성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험난한 미래에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함께 어려움과 맞설 수 있는 내면의 힘 역시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겨주는 데 성공하셨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 이어질 힘이었다. 오늘날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수행하시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전도자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교리적인 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우려를 안고서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경고 메시지를 영혼들에게 먹이려 애썼을 수 있다. 지역교회 지체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관한 가르침만 계속 전달해주면 되겠거니 하고 ‘잘못 짐작’했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거의 모든 설교에서 오늘날의 종교계에서 쟁점이 된 사안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수 있다.

‘우리 전도자들이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영적 굶주림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진 적이 있는가?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 삶 속에 넘치는 은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이어지는 끝없는 교제에 관한 커다란 확신 등을 지체들에게 전해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측면을 소홀히 하게 된 데에는, 삶에 힘을 공급하는 생명의 샘물을 마음속 깊이 충분히 마시는 경험을 우리 자신이 한 적이 없다는 슬픈 사실이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복음서를 더욱 주의 깊게 읽는 일은 아직도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에 관하여 더 깊은 통찰을 얻어야 한다. 크고 강하며 역동적이고 위대하며 선하신 예수님, 가까운 친구들의 인생과 충성과 사랑을 그토록 영광스럽게 사로잡은 그 모습을 보아야 한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들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교리 면에서나 실천 면에서나 기도는 사도들에게 친숙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듣고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요청했다. “주님, …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십시오” [눅 11:1 공동번역개정].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제자들은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무엇인가를 느꼈음이 분명하다.

편집자 註 * 어부, 세리 등 다양한 직업 출신의 사람들이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가정에서 성장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누리시는 바로 그 경험을 자신들도 누리고 싶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있는 사실은, 변화산에서의 장면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하는 모습에서 시작되었는데, 용모의 변화가 일어난 때가 바로 “그가 기도하실 때”였다는 점이다. 주님의 기도는 온밤을 지새우는 기도일 때가 많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고하는 기도는 영혼의 고통을 극복하게 했고,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힘을 돕도록 만들었다.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기도는 ‘실험’인 적이 없었다. 그에게 기도는 항상 ‘체험’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기’와 ‘문 두드리기’를 늘 ‘찾기’와 함께 진행했다. 그는 이 위대한 유산을 사도들에게 전달하고자 신성한 신실함으로 노력했다. 마태복음 제6장에 기록된 기도는 자기 나뭇의 선의를 지닌 종교단체들에 의해 일종의 ‘기도문’으로 격이 낮추어져 ‘주기도문’이라는 부적절한 이름으로 불려 왔다. 그곳에 기록된 내용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답하신 말씀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편집자 註 ** 눅 11:1을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글쓴이는 이를 ‘기도 방법’에 관한 구체적 질문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시작하셨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잘못된 기도의 예로 예수께서 말씀하는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경우이다. 그것은 기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일 뿐 아니라 기도의 동기 역시 잘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올바른 방식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영적 경로를 따른다. [제48권에 계속…]

글쓴이: E. W. 맥밀란

McMillan, E. W. *The Minister's Spiritual Life*. pp. 77-80.

Transalted with permission.

성경 원어산책

프로슈코마이 **προσέυχομαι** ‘기도하다’

(스트롱 헬라어 번호 4336)

신약성경에 85회나 사용된 중요한 단어이다. ‘기도하라’는 명령법으로 기록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벽이나 밤중 등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짬짬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떠올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이모티콘’과 ‘도움 요청 문자’를 발송하자.

마태복음 5:44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프로슈케스데 | προσεύχεσθε | 현재시제 명령법 2인칭 복수]

마태복음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프로슈사이 | πρόσευξαι | 부정과거시제 명령법 2인칭 단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프로슈케스데 | προσεύχεσθε | 현재시제 명령법 2인칭 복수]

데살로니가후서 3:1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프로슈케스데 | προσεύχεσθε | 현재시제 명령법 2인칭 복수] …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생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신 공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전 1:3)

역사 이래로 인류는 ‘영생’을 갈망해왔습니다. 종교인들 중에 3/4 가량이 사후세계를 믿는다고 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육체적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시 89:48).

죽음을 대하는 태도

육체적 죽음에 대한 비신앙인들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아쉬움, 두려움, 절망, 슬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달리 생각합니다. 비신앙인들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기록하면서, 만일 죄의 문제가 없었다면, 죽음의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롬 6:23).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중심에는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은 육체적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인은 세례(침수)를 통해 육체에 대하여 죽고,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죽음은 개인, 인류 또는 우주의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했습니다(고전 15:19).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고 고백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전 15:54);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선언합니다(고전 15:15).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계 21:4).

소망의 근거

우리가 공유하는 이 소망이 모호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1-22). 그리스도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딤후 1:10).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소망의 보증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빌 1:23).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요 11:25).

악인이 받을 심판

그런데, 부활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경고합니다(요 5:29).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주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사망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악인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 갖는 의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소망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사야는 주님의 종(그리스도)에 대해 ‘정의를 베푸는 자’(42:1)라고 합니다. 모든 재판은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관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임을 알기에 오히려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심판관은 우리를 재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는 분입니다(요일 2:1).

심판의 기준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창 3:7, 10-11; 히 4:12-13). 하나님은 죄인은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십니다(렘 26장).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날에 대해 예고했습니다(사 13:11; 겔 30:3; 욥[요엘] 2:1-2; 암 5:18; 스 1:14-1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판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마 10:32-33; 눅 12:8-9). 또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

습니다(마 16:27). 믿음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에서조차(요 6:29; 6:40) 행위에 따른 심판에 대하여 기록합니다(요 5:29).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롬 2:6-7)과 진노(롬 2:5, 8; 5:9)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고후 5:10; 롬 14:10; 고후 11:15).

아고보는 “심판을 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약 2:12). 공흠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공흠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약 2:13). 이와 같이, 신약성경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수많은 구절이 있습니다(행 10:42; 딤후 4:1; 히 10:25, 27, 30; 13:4; 벰전 1:17; 2:12; 4:5; 벰후 2:4, 9; 3:7; 요일 4:17; 계 20:12-13). 이 모든 구절은 최후의 심판이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지닌 모습

그러면 부활 후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종종 미리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즉 천국의 모습이라고 믿을만한 구체적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지닌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맛보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영원함(막 9:47), 잔치(마 8:11; 계 19:9), 하늘의 예루살렘(히 12:22; 계 3:12), 안식의 장소(히 4:1, 9), 빛과 왕의 통치(계 22:5), 새 하늘과 새 땅(계 21:1)이 바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 나라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준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세차게湧솟음하지 않나요? 저는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더 기쁘고 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천국이 지닌 자세한 모습을 미리 알고 싶지 않고, 알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닌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말과 행동, 희생과 헌신의 결과임을 함께 기억합시다. 영원한 안식처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빛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글쓴이: 함동수(제주중앙교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1-3)

체크포인트

연속간행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원래 주어진 의미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며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범위 안에서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헌과 역사와 인물을 치밀하게 연구하여 이 시대에 적합한 학문 언어로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바람직한 실천 방안과 의미를 제시하고자 애쓰는 신학자들의 노력 역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는 설명 방법 가운데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현재성과 미래성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1.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로 말씀하셨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하여 그 당시 이미 시작된 일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누가복음 11:2, 20).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시던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직접적으로 임하기 시작한 때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루어질 미래이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가온 첫 오순절 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사도행전 2장). 이 일에 대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마가복음 9:1).

2.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번 호에 수록한 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생의 소망>에서 잘 볼 수 있듯, 천국에 도달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히 거할 복된 처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에 ‘지금’ 속해 있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속히’ 올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빌립보서 3:20).

새 노래

기뻐하라

Rejoice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작곡 전상길
편곡 고은주

[A] ♩ = 107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B]

10

말고 다만 - 모든 일에 기도 와 간 구 로 - 너 희

13

구 할 것 을 감 사 함 으 로 하 나 님 께 아 뢰

16

라 아무 그 - 리 하 면 모든 지 각 에 뛰

19

어 난 하 나 님 의 평 강 이 그 리 스 도

22

예 수 안 에서 너 희 마 음 과 생 각 을 지 키 시 리

24

D.S. al Coda

라 - 아 무 하 나 님 께 아 - 뢰 라

순서: A - Bx2 - A - B - C - Bx2 - D(Ending)

버리고 말기라

길이 보이지 않고
당신의 마음은 집을 향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말기라.

꿈이 부서져 가루가 되고
신뢰를 쌓을 마음마저 잃었을 때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게 말기라.

믿음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불길을 살릴 불씨마저 없을 때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불붙이시게 말기라.

용기가 당신을 떠나고
희망의 샘물이 말라갈 때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소생시키시게 말기라.

글쓴이: 클리프 홀즈

Holms, Cliff. "Let Go and Let God." *The Voice of Truth International*. Vol. 108,
Translated from the inside front cover with permission.

“BE HOLY FOR JOY AND PEACE.”

‘거룩한 삶에 깃드는 기쁨과 평강’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랍니다.

